

日本 타이어新報 및 고무報知新聞社 社長 訪韓

지난 10월 17일 日本 「타이어新報社」의 木本嶺二 社長과 「고무報知新聞社」의 山本鐵太郎 社長이 우리나라 自動車 타이어 業界의 現況을 取材하기 위하여 訪韓하였다가 11월 20일 돌아갔다.

이들은 3박 4일간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우리 協會와 韓國타이어製造株式會社, 株式會社 錦湖, 株式會社 宇成産業을 차례로 방문, 各社의 經營哲學과 向後的 經營方針 및 國際戰略 등에 대하여 取材活動을 벌였는데, 이들의 訪韓日程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0월 17일(수) 서울 도착
- 10월 18일(목) 午後 우리 協會를 방문하여 金址柄 專務理事로부터 業界全般에 걸친 現況을 청취한 뒤 韓國 타이어製造(株)를 방문하여 洪健熹 社長과 인터뷰
- 10월 18일 午後 韓國타이어製造(株) 大田工場 見學
- 10월 19일(금) (株)錦湖 光州工場을 방문하여 同社 金千植 研究所長과 인터뷰를 한 뒤 工場 및 研究所, 自動車 倉庫 見學
- 10월 20일(토) (株)宇成産業을 방문하여 金東鐵 副社長과 인터뷰

日本自動車타이어協會 一行 訪韓

日本自動車타이어協會(JATMA)의 Yasuo Yoshioka 專務理事와 Motomu Shinohara 技術部次長, Bridgestone社의 Hiroshi Ando 副社長, Yokohama고무社의 Hiroshi Itoh 營業部長 등 일행 4명이 우리 業界의 會議 및 親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1일 訪韓하였다가 11월 4일 돌아갔다.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우리나라에 온 이들 일행은 11월 1일 오후 우리 協會를 방문하여 金址柄 專務理事와 환담을 나눈 후 우리 協會에서 마련한 환영 모임에 참석하여 親睦을 다졌다.

11월 2일에는 우리 業界 일행(한국타이어제조(주) 박인환 이사, (주)금호유재인 부장, (주)우성산업 김중수 이사, 협회 김지병 전무이사와 이원선 부장)과 함께 제주도로 출발 「제주 신라호텔」, 회의실에서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협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日本의 Spike Tire 粉塵發生防止法案에 대한 說明
- 2) 兩國공동관심사인 페타이어 處理問題
- 3) JATMA와 KOTMA의 交流
- 4) 輸出用 타이어 날개包裝問題

그리고 11월 3일에는 제주 중문골프장에서 골프 모임을 갖고 향후 兩國間의 交流를 더욱 확대하기로 하였다.